



김옥애 동화작가는 강진 대구면 중저마을에 있는 오두막집(김옥애 문학촌)에서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 '어린 왕자' 읽고 세상 보는 마음의 눈 떠



## 명사의 서재

### 17 김옥애 동화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어린왕자가 들려주는 '길들이는 것과 길타는 것'에 대한 일화는 관계와 사랑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우죠. 그것은 또한 관계 이면에 드러워진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작은 오두막집(김옥애 문학촌)을 짓고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오두막집은 가우도 출판사리타 한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15평 남짓한 아담한 창작실은 김 작가만의 공간이자, 가끔씩 들르는 지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다. 김 작가는 중·고교 시절 시 습작을 많이 했다. 이른바 시인을 꿈꾸던 문학소녀였다. 책읽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광주교육대에 입학해 문예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한다. 소설도 쓰고, 시와 동화도 쓰면서 장차 교사와 문인을 병행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다. "1975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습니다. 고향 강진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동화를 썼는데, '우물가를 땀도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뜻하지 않게 당선이 되었죠." 마침내 문학소녀였던 그녀에게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한번 인정을 받게 되자 글에도

흔히 동화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선입관이 있지만, 선한 삶과 악한 삶을 비추주는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담을 수 있는 장르다. 어른들이 함께 읽고, 생각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후 김 작가는 동화를 쓰는 틈틈이 학문에 대한 탐구도 병행한다. 호남대학 대학원 국문과에 진학해, 동화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다. 생각보다 학문과 창작의 간극은 컸지만, 동화를 다층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배운다. 동화를 쓰면서 동화 외에 소설을 읽게 된 건 그 때문이다. 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이동하의 '우울한 귀향'과 박완서(1931~2011)의 '노란 집'이다. 전자가 암울한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허무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면, 후자는 '노년도 또다른 삶'이라는 주제를 정지하게 그려냈다. 젊은이의 방황과 열정, 그리고 생을 바라보는 노년의 깊어진 눈은 글을 쓰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다루고 싶은 화제이기도 하다.

## 관계와 사랑에 대한 성찰, 동화작가로 인도

## 32년간 교편·글쓰기 병행...명퇴후 집필 전념

강진 출신 동화작가 김옥애씨는 자신을 작가의 길로 이끈 책으로 '어린왕자'를 꼽는다. 그 책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강조한다. 김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왕자의 말이 특히 맘에 든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안다는 의미란다. 동화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다. '어린 왕자'는 김 작가를 동화의 세계로 이끌었고, 작가가 된 이후로는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준 소중한 책이었다. 그녀의 어린 왕자는 다름 아닌 동화책 '어린 왕자'였던 것이다. 김 작가는 2011년부터 강진 대구면 중저마을에

탄력이 붙었다. 김 작가는 또 그렇게 몇 년간 절치부심 글을 썼다. 197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너는 어디로 갔니?'가 당선됨으로써,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된다. 글쓰기와 교편이라는 두 개의 일이 천직으로 주어졌다.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 즈음에 읽었던 책이 '반아심경'이다. 익히 알다시피 '반아심경'의 핵심 사상은 '공(空) 사상'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없음의 무(無)에서 유(有)가 나오는 것은 연기(緣起)에 의해서란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작가는 '반아심경'을 통해 무엇이 선한 업(業)이며, 악한 업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글·사진=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음악으로 물드는 시월의 마지막 밤

공연 순수·문화교류호남재단·광산구립합창단 등 공연 풍성

10월의 마지막 날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낭만음악회가 광주지역 곳곳에서 열린다. '공연 순수'와 (사)컬처네트워킹은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양림동 사직공원 옛 수영장 자리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Part 6: 청춘음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청춘, 음악으로 모이다'를 주제로 버스킹팀인 '별이삼우물집'과 '조아브로'의 경쾌하고 신나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어 어쿠스틱 기타연주팀 '스타카토 리퍼블리', 재즈팀 '크림트리오', '클라이막스', '몬텐하프', 퓨전국악팀 '그루'의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연장 한편에서는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운영된다. 문의 070-4240-0976.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나눔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클래식 음악회도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어울림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열린, 나눔, 어울림'이란 주제로 '가을애 음악회'를 개최한다. 3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무등산 치과봉사센터 설립 기금 마련과 공연 예술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는 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등에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븐 크레머(사진)의 지휘와 어울림 챔버 오케스트라, 테너 강동명, 소프라노 김미옥이 참여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차이콥스키가 이탈리아 플로렌스를 그리워하며 만든 '플로렌스의 추억 Souvenir de Florence', 화려하면서도 낭만적인 에르네스트 블

로흐의 '피아노 현악 합주곡 Concert Gross No.1 for piano and strings'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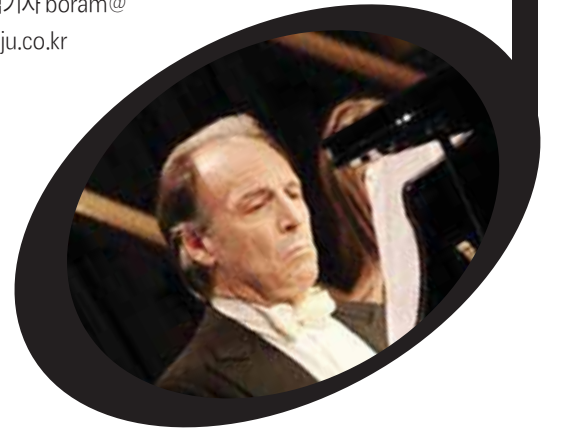
테너 강동명이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3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소프라노 김미옥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의 '친애하는 후작님 Mein Herr Marquis'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234-2727.

광산구립합창단도 31일 오후 7시30분 열세번째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아름다운 노래를 허락 받는다'는 뜻의 '可佳歌(가가가)'를 부제로 펼쳐지는 음악회는 줄리아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를 시작으로 아리아 만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향수', '웨딩케이크', 'Cotten Field' 등을 들려준다. 재즈트리오 'All that Jazz', 나주시립국악단, 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멤버 정남호 씨 등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합창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음악회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문의 062-960-825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강물에 물감 풀어 놓은 듯

차숙자 초대전 다음달 3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강물에 물감을 풀어 놓은 듯 화폭을 적시는 먹의 변질이 인상적이다. 장지에 스며든 먹이 만들어낸 바탕에 채색된 산수는 자연의 경쾌한 운율을 느끼게 한다.



'유정'

전남대병원 갤러리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한국화가 차숙자씨 초대전에서는 먹으로 쓰는 한편의 시를 만날 수 있다.

화선지에 수묵 채색한 뒤 글을 쓴 '유정' '만복'과 같은 작품에서는 따뜻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고, 세밀한 변점으로 표현된 '월레' '여름날의 휴식' '한길로' 등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풍경들이 힘 없이 읽힌다. '여명'과 같은 작품에는 먹으로 표현된 빛이 담겨 있다.

차씨는 한국화 및 여류화학회, 연진회 회원으로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전남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20-509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험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LE ₩10,800

밀리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12,900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초~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